

大河기획/한라산 학술대탐사(179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13)돌이미·비치미·개오름
개오름, 화구없는 돔형화산체 첫 확인

입력 : 2004. 01.09. 00:00:00



돌이미(도리미), 비치미, 개오름 탐사는 12월 7일 실시됐다. 이날은 올 겨울 제주 전역에 첫 눈이 내렸다. 바람까지 매서워 탐사에 어려움이 따랐다. 수차례 경험했듯이 겨울탐사는 날씨가 변수다. 산악인 오문필 위원은 “산행시 보온을 주의해야 한다”며 표고가 1백m 상승할 때마다 0.6~0.7도의 기온변화를 일으킨다고 했다.

△돌이미오름

송당 민오름을 먼저 올라 돌이미와 비치미, 개오름의 모습을 조망했다. 민오름에서 바라본 돌 이미는 내야 본부석과 스탠드가 있는 천연 야구장을 연상케 한다. 오름 연구가들은 돌이미를 작은돌이미와 큰돌이미로 나누기도 하는데 의견이 분분하다. 지도상에는 민오름 남쪽에 있는 오름을 작은돌이미로 표기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이를 큰돌이미로 해석하기도 한다.

돌이미 정상부와 둘레는 마치 성처럼 암벽으로 둘러져 있다. 오름 이마에 해당하는 지점에 바위들이 있어 석액악(石額岳)이라고도 한다. 돌이미의 어원은 등성이가 둥그렇게 둘러져 있어 유래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돌이미는 북서쪽으로 향한 말굽형 굽부리를 갖고 있다. 비고 82m 낮은 오름인데다 주변에 개오름, 비치미오름, 민오름 때문에 높이는 훨씬 낮게 보인다.

△비치미오름

돌이미 남서쪽에 있는 오름이 비치미오름이다. 비치미오름 쪽에서 보면 돌이미는 북동방향이다. 이 두 오름은 서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 마치 하나의 오름 같지만 별개이다. 비치미오름의 유래는 크게 두가지 설이 있다. 오름 모양이 꿩이 나는 모습을 한 형태에서 비치(飛雉)라는 하나이고 옛 지도에는 이 오름이 길게 비스듬히 가로누워 있는 형태의 뜻을 지닌 횡산(橫山)이라고 표기했다. 화구에는 큰 무덤이 자리잡고 있다.

비치미오름의 분화구는 남동쪽에 위치한 개오름 쪽에서 더욱 선명하다. 개오름은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2리에 있다. 따라서 개오름과 비치미오름은 북제주군 구좌읍과 남제주군 표선면의 경계가 되고 있다.

△개오름

개오름은 오름 모양이 개와 같다는 데서 구악(狗岳), 밥그릇 뚜껑과 비슷하다는 데서 개악(蓋岳)이라고도 한다. 오름 정상에는 거대한 바위들이 무더기로 박혀 있다.

탐사단은 개오름 정상 탐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하는 개가를 올렸다. 탐사결과 원추형의 개오름은 송이로 구성된 오름중에서 화구를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송이층 위의 화구가 있었던 정상부 전체가 조면안산암으로 분출한 돔(Dome)형 구조를 이루고 있음이 확인됐다. 탐사위원 정차연 박사는 “지금까지 조사과정에서 처음 나타난 독특한 오름의 유형으로 제주 화산체 연구에 매우 귀중한 단서가 된다”고 말했다.

개오름 남쪽 기슭으로 천미천이 흐르고 있다./특별취재팀

<한승철부장(기획특집부)·강시영·이윤형차장()·표성준(편집부)·강경민사진부기자 >

[전문가리포트]개오름은 독특한 오름유형

개오름은 평면상 거의 원형에 가까우며, 입체적으로는 주변 지형과 완전히 독립된 원추형 모양의 오름이다. 오름이 시작되는 지점부터 표고 약 318m까지는 송이(분석)가 분포하고 그 상부에서 정상(표고 344.7m)까지는 조면안산암이 정상부를 형성하고 있다. 정상부 조면안산암에서 떨어져 나온 전석들이 오름 사면이나 오름사면 아래까지 흘러 내려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송이층의 지질로 구성된 독립된 원추형의 오름에서는 대부분 정상부 중심이 움푹 들어간 사발형의 화구(곰부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개오름의 경우 화구(곰부리)를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송이로 구성된 오름 중에서 화구를 찾아볼 수 없으면서 송이층 위의 정상부 전체가 조면안산암으로 구성된 오름은 지금까지의 조사과정에서 처음 나타난 독특한 오름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개오름을 구성하는 지질로부터 그 형성과정을 다음과 같이 유추해볼 수 있다.

1단계 : 송이(분석)로 구성된 오름의 형성. 먼저 스트롬볼리안 화산활동이 시작되어 다량의 화산쇄설물을 분출하였고 비고가 최소 100m인 송이로 구성된 오름을 형성하였을 것이다. 이후 화산쇄설물을 분출하던 화산활동은 용암이 화구에서 유출되는 화산활동으로 변화하였다.

2단계 : 조면안산암질 스파인(spine)의 형성단계. 개오름에서는 화구로부터 현무암질 용암이 아닌 조면안산암질 용암이 유출되었는데, 조면안산암질 용암은 점성이 높기 때문에 화구를 채우면서 그 상부로 약간 더 솟아오른 스파인을 형성하면서 굳게되었다. 현재의 조면암 분포로 볼 때, 그 용암의 양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고 스파인 형성 이후 곧바로 개오름의 화산활동이 완전히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3단계 : 침식작용에 의한 현재의 지형 형성. 정상부의 스파인을 구성한 조면안산암이 전석으로 오름 사면에 흘러내린 것으로 볼 때, 침식작용에 의해 스파인의 대부분이 파쇄되고 오름의 높이 또한 형성당시보다는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정차연 탐사위원 지질분야/농업기반공사제주본부·이학박사)

[전문가리포트]비치미는, '무녀배두형'

비치미오름은 민오름, 큰도리미, 작은도리미와 더불어 음양이 소생하여 연역된 사상(四象)의 조화를 안고 있는 오름중의 하나이다.

한편으로 선율처럼 황홀한 곡선미를 자랑하며 휘날리듯 막 가무를 마치고 하늘의 성신(星辰)을 향해 머리를 조아리듯 양팔을 앞으로 뻗어 절을 하는 형국이다. 풍수적으로 보면 비치미 오름은 '무녀배두형(舞女拜斗形)'에 가깝다.

또한 비치미 오름은 흘러온 지세를 서북쪽에서 받아 머리를 들어올리고, 굽부리가 동쪽으로 벌어져 내리면서 양날개의 형국을 이루고 그 가운데로 다시 도톰하게 등성이가 융기되면서 출렁이듯 한 번은 높게 한 번은 낮게 솟아 두 번의 기복을 이루며 힘차게 기운을 모으며, 동쪽으로 줄기가 흘러 내려가는 동사면과 남사면의 자리에 묘지군(墓地群)을 형성한다.

비치미 오름은 비찌미·비치메·비치미·비치악·비치산 등으로 불리우며 지명에 관하여 의론이 분분하지만 꿩이 나는 형국과 비끼어 돌아 뻗은 형국 모두 의미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비치미의 지기(地氣)를 얻으면 누대에 걸쳐 균계통이나 예능계통에서 출중한 인물이 출현할 수 있는 영험한 기운을 안고 있는 오름이다.

그 은밀함을 안은 비치미 자락 그 남사면 기슭에 한라산을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분, 식물학계에 영원한 족적을 남기신 한산(寒山) 부종휴 선생의 산소를 바라보면서 오름탐사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본다.

(신영대 탐사위원 풍수분야/제주관광대 교수)

[특별기고/ '한라대맥'에 바란다]"제주인의 역사·문화 함께 재조명되기를"

지방언론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는 한라일보사가 야심차게 기획한 한라산 학술대탐사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를 시작하게 됨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고 충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대자연의 탐사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숨겨진 보고들을 발굴하여 자원화하고 나아가 제주와 한라산의 가치를 선양하고 재조명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무척 고무적인 일이다.

한라일보사는 이미 제1부 '생명의 원류/하천과 계곡'을 통해서 그 탐사의 진가를 여실히 보여줬다. 한라산은 자연이기 전에 제주도민들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번 탐사에서도 대자연의 현상만이 아니라 그 속에 녹아 있는 제주인들의 역사와 문화 애환 까지도 조명하여 정체성을 확인하고, 제주발전의 원천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탐사보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갈 탐사대원과 특별취재팀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한다.

(제주도산악연맹 김영훈 회장)

[사진설명]성읍 2리에 있는 개오름 전경. 비치미오름에서 바라본 모습이다. 개오름 정상은 화구가 없는 돛형 화산체임이 탐사결과 밝혀졌다./사진=강경민기자 gm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